

강이야기

3

River & Culture



이영희 | 초록미당영농조합법인  
(dyfarm@hanmail.net)

# 하천을 아름답게 하는 창포와 붓꽃

## 1. 머리글

우리 하천에는 참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자란다. 이 식물들은 자라서 하천의 자체 정화능력을 높여주어 우리의 하천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식물들을 하천정비와 치수를 한다는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하천을 파헤쳐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하천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사람들이 애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며,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옛 하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이 깨끗해지고, 어류의 산란 및 서식공간이 조성되고, 곤충과 새들의 놀이터가 되며, 인간과 어우러져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하천가에 자라는 식물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창포이며, 흔하게 하천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창포이다. 지금의 생태하천 조성지에는 꽃창포, 노랑꽃창포가 가장 흔한 식물이 되어 우리의 하천변 대표수종으로 변하고 있다. 창포와 꽃창포

는 이름이 똑같이 창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종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은 창포와 꽃창포는 서로 다른과의 식물이다. 창포는 천남성과에 속하는 창포속 식물이며, 꽃창포는 붓꽃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붓꽃과 붓꽃속에 속하는 꽃으로는 꽃창포, 노랑꽃창포, 부채붓꽃, 제비붓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꽃의 생김이 비슷하여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구분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노랑꽃창포는 꽃색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꽃창포는 진한 보라색으로 6~7월에 개화하여 산골의 골짜기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부채붓꽃은 함백산과 강원도 일부의 냇가에서 만날 수 있고, 꽃색이 연한 청색으로 5월에 대부분 꽃이 핀다. 제비붓꽃은 진한청색으로 5월에 개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에만 자생한다고 한다.

창포는 천남성과 창포속 식물로 창포속 식물은 세계에 2종만이 존재하며, 우리 땅에는 2종이 모두 자라고 있다. 창포는 냇가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으나, 석창포는 계룡산 이남의 산속 계곡돌틈에서 자생하므로 식재지만으로도 식물을 구분할 수 있다.

## 2. 창포와 붓꽃

### ■ 창포

● 창포는 끓는 물에 잎자루를 넣어 그 맑은 향을 맡으며 머리감고 목욕을 하는 단옷날 풍속화가 떠오르게 하는 식물로 한방에서는 건위·진경·거담 등에 효능이 있어 약재로 이용하며 뿌리는 소화불량·설사·기관지염 등에 이용한다. 또한 뿌리줄기는 방향성 건위제로 이용하며 향주머니를 만들어 베게 속에 넣어 이용하기로 한다.

- 학명 :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 분포지역 : 한국·일본·중국
- 서식장소 : 연못가나 도랑가 (5~30cm 내외)
- 개화기 : 6~7월
- 결실기 : 7~8월
- 용도 : 땅속줄기는 약용 또는 향료, 잎은 향료
- 꽃말 : 할 말이 있어요



〈그림 1〉 창포

### ■ 석창포

● 석창포는 남부지방부터 계룡산 계곡까지 자라는 식물로 중부나 북부지방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으로 수험생들의 머리를 맑게 해준다하여 잎을 끓여 차로 마시기도 하는 식물이다. 물론 창포처럼 목욕물에 넣어 이용도 한다.

- 학명 : *Acorus gramineus*
- 분포지역 : 한국(중부지방 이남) · 일본 · 중국 · 인도
- 서식장소 : 산지나 들판의 냇가 (5~10cm 내외)
- 개화기 : 6~7월
- 용도 : 근경은 약용
- 꽃말 : 우아



〈그림 2〉 석창포

### ■ 꽃창포

- 한동안 창포비누라고 하며 비누포장지에 꽃창포 꽃을 인쇄하여 판매되는 비누가 있었는데 누구도 창포와 꽃창포의 차이점을 생각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것으로 창포와 꽃창포는 전혀 다른 품종이다. 계곡의 골짜기 도랑가에 자라는 꽃창포는 그 꽃만으로도 청아하고 맑은 모습이 연상되며 하얀 옷감에 금방이라도 보라색 물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자란다. 꽃창포는 프랑스의 국화이기도하며 입을 만한 전설을 가진 꽃이다.
- 클로비스 프랑스왕은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흔살이 넘도록, 한번도 보지 못한 천사가 꿈에 나타나 방패 하나를 주며, 왕비에게 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주고 간 방패에는 꽃창포 세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왕은 천사가 주고 간 방패처럼 전국의 병사에게 방패의 문양을 꽃창포로 바꾸어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방패의 문양은 개구리였습니다. 그런지 얼마 뒤에, 외국의 군대가 프랑스에 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땅을 집어 삼키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온 적군. 먼저 쳐들어온 군사들이 그만큼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군대는 적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프랑스 영토를 한 발도 밟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병사들도 신이 났습니다. 왕은 이것이 천사의 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방패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프랑스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고마운 천사여! 프랑스는 다시 평화로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군대가 또 프랑스를 쳐들어옵니다. 한번 실패를 하고 돌아간 적군은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수천 마리의 말과 수백만의 군대가 프랑스 영토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뢰오. 적군이 침입하였다고 하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느니라. 국경선을 지키는 장군을 불러라.” 허연 수염을 기른 장군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국경으로 가시오. 짐도 곧 그리로 나가겠소.” 프랑스는 다시 전투태세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프랑스 국민과 군사들에게 더 이상 전선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양쪽 다 수많은 부상자가 나고 죽은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 기회다. 총반격이다.” 백마를 탄 왕은 몸소 전쟁터로 나아가 총지휘를 하였습니다. 꽃창포가 그려진 방패를 든 왕은 동과 서로 뛰면서 적군의 기세를 막았습니다. 왕의 모습을 본 군사들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적을 삼시간에 쳐부수었습니다. 총사령관의 목이 떨어지고 수십만의 포로를 사로잡은 프랑스군은 완전히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 나라 땅까지 점령한 프랑스는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오자, 왕은 왕비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방패의 문양을 개구리에서 꽃창포로 바뀐 뒤로 두 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꽃창포를 국화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왕비도 반대할 리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지켜 준 꽃창포를

당연히 국화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꽃창포는 프랑스 국화가 된 것입니다.

- 학명 : *Iris ensata* var. *spontanea*
- 분포지역 : 한국(전역)
- 서식장소 : 습지 (5cm 내외)
- 개화기 : 6~7월
- 결실기 : 8~9월
- 용도 : 관상용, 생태하천조성용
- 꽃말 : 기쁜 소식



(그림 3) 꽃창포

#### ■ 노랑꽃창포

- 유럽에서 도입된 종으로 서산이나 김제 쪽의 하천변에 많이 자생하는 식물로 건조지에서 잘 자라며 물가 습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생태하천 조성지나 하천변 산책로를 여유롭게 걷다보며 5~6월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으로 풀숲에 노란색 꽃이 있다면 어김없이 노랑꽃창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자란다.
- 학명 : *Iris pseudoacorus*
- 서식장소 : 습지, 연못가 (5~10cm 내외)
- 개화기 : 5~7월
- 결실기 : 8~9월
- 용도 : 관상용, 생태하천 조성용
- 꽃말 : 우아한 마음



(그림 4) 노랑꽃창포

### ■ 부채붓꽃

● 강원도 함백산 계곡에 자생하는 식물로 발견 초창기에는 하천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로 현재는 하천가에 드물게 자라며, 생산업자들에 의해 대량번식이 가능한 식물이며 하천변 정화 식물로 이용이 가능하다.

- 학명 : *Iris setosa*
- 분포지역 : 한국 · 중국 북동부 · 시베리아 동부 · 일본 · 캄차카 · 알류산 열도
- 서식장소 : 습지 (10~20cm 내외)
- 개화기 : 5~7월
- 용도 : 관상용
- 꽃말 : 신비로운 사람



(그림 5) 부채붓꽃

### ■ 제비붓꽃

● 꽃창포와 가장 유사한 식물로 개화기가 꽃창포보다 1달 정도 빠르고 꽃이 조금 크며 꽃색이 남색에 가까운 식물로 일반사람은 구분을 하지 못한다. 꽃이 좋아서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하며 원예 품종으로도 많이 개발 되는 식물이다. 현재는 식물원이나 가야원종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식물이다.

- 학명 : *Iris laevigata*
- 분포지역 : 한국(지리산) · 일본 · 중국 · 시베리아 동부
- 서식장소 : 습지 (10cm 내외)
- 개화기 : 5~6월
- 용도 : 관상용, 생태하천복원용
- 꽃말 : 행운이 온다



(그림 6) 제비붓꽃

## 3. 맺음말

우리는 창포와 붓꽃 등의 수생·수변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천정화에 이용하여 옛날의 맑고 깨끗한 하천의 모습을 그려본다. 한 품종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런 식물의 특성을 하천변에 적용함으로써 생태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저 풀 한포기 심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옛날의 자정력이 뛰어난 하천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우리의 하천은 웃으며 후세의 자손들을 맞이할 것이다. 🌱